현대소설연구(제9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3.12.92.203

에코페미니즘 시각으로 본 윤이형 소설의 타자에 대한 질문

-단편소설 「굿바이」, 「수아」를 대상으로

정 연 희*

요약

윤이형의 단편소설 「굿바이」와 「수아」는 테크노휴먼과 인간의 종간 상호의존관계라는 그물망에서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다. 본고는 이들 소설이 가진 문제의식이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둔 텍스트라고 판단하고 이들 소설을 타자의 관계 윤리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윤이형의 사이보그 소설은 초연결자아의 균질화 가능성과 테크노휴먼의 타자화라는 문제에 주목한다. 두 소설이 재미있는 점은 SF의 상상력으로 이들 문제를 현실의 경험으로 성찰하는 점에 있다. 과학소설과 사회현실의 경계는 착시에 불과하며 오히려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으로서 사이보그 은유는 종의 경계를 넘는 연결이라는 현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두 사실은 이방인의 의미나 타자화된 목소리를 포용하고 배제와 위계의 서사를 해체하고자 하는 에코페미니스트 서사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기계인간 스파이디의 '새로운 세계'와 인간인 당신의 '오래된 세계'를 나란히 놓고 있는 「굿바이」의 전체 서사 구도는 핵심 전략으로 읽힌다. 두 세계의 대립은 기계전환인간과 오리지널인간의 상호 타자성을 강화하고 두 세계의 이해 불가능성으로 점증하다가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 생명의 확신으로 도약해버린다는 점에 그러하다. 사실상 비논리적인 서사전개인 셈인데, 이는 오히려 이해 불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납득되는 인과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무릅쓰고 받아들이는 영

* 대진대학교 상생교양대학 교양학부 부교수

성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이라는 의미에 대응하는 서사형식으로 간주할 만하다. 또 다른 소설 「수아」는 인간과 로봇의 대립을 통해 인간이 무엇인지, 또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묵직한 물음을 던지는 소설이다. 인간중심주의의 오만과 불안을 통해 인류의 재정의를 촉구하는 상상의 실험장소를 보여주는데, 「수아」의 대미는 오만한 목격자격인 주인공이 타자화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데에 있다.

「굿바이」와 「수아」, 두 소설의 기계인간과 로봇은 정보기술의 지배시대에 우리가 만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좀 더 이질적이고 강렬한 타자성을 은유한다. '함께 관계하며 존재하기'를 생각하게 하는 기술시대의 타자로서 사이보그 은유라고 할 수 있거니와, 여기에서 우리는 윤이형 소설의 SF 감각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윤이형, 「굿바이」, 「수아」, SF, 사이보그 은유, 타자성, 배려와 책임, 타자 윤리, 에코페미니스트 서사, 사랑의 눈, 함께 관계하며 존재하기

목차

1. 서론
2. 초연결자아의 출현과 에코토피아(ecotopia)의 길목에서 만나는 차이의 문제
3. 오만한 목격자의 타자성 인식
4. 결론: SF와 에코페미니즘의 윤리적 계기

1. 서론

윤이형의 단편소설 「굿바이」, 「대니」, 「수아」는 테크노휴먼이 인간과 공거하는 미래 세계를 그리고 있다.[1] 「굿바이」의 스파이디는 화성의 새로운 공동체 실험을 위해 인간 신체를 포기하고 기계신체를 선택한 기계

1) 「굿바이」와 「대니」는 세 번째 소설집 『러브 레플리카』(문학동네, 2016), 「수아」는 네 번째 소설집 『작은마음동호회』(문학동네, 2019)에 수록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굿바이」와 「수아」를 분석텍스트로 삼는다. 「대니」는 이 글의 논지에서 볼 때 「수아」와 함께 논의할 수 있으나 동어반복의 우려가 있어서 이를 제외하였다. 앞으로 본문 인용은 면수만 밝힌다.

인간이다. 「대니」의 대니는 인간 감정의 팔십 퍼센트를 느끼고 재현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베이비시터이며, 「수아」의 수아는 자신의 의지로 주체성을 주장하는 가정용 로봇이다. 이들 세 소설이 흥미로운 점은 이들 존재가 단순히 소재의 차원이 아니라 정보과학과 생명공학이 지배하는 사회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탕에 깔고서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비인간 타자로서 익숙한 존재가 자연생명이었다면 이제 새롭게 등장한 기계-타자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라는 난처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여성, 유색인, 자연이 가지는 타자성보다 더 이질적이고 낯선 타자성으로 '타자에 대한 질문'을 촉구하는 것이다. 윤이형 소설은 포스트휴먼의 조건에서 일부 현실이면서 상상이기도 한 새로운 존재를 통해 타자의 관계 윤리를 성찰하는 서사텍스트라고 할 만하다.

과학소설이 "차이와의 만남"을 다루는 장르라고 한다면,[2] 이들 세 소설에 나타나는 '차이와의 만남'의 테마는 인간이 중심이라는 것, 인간중심이 인간 본성에 부여된 자명한 지위라는 것, 휴머니즘 주체가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상식적 믿음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있다. 사이보그와 안드로이드가 대중화된 세계를 설정하여 그들과 '함께 관계하며 존재하는 것'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세 소설은 기술정보과학의 지배 환경에서 완고하게 본성 중심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정체성에 유동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동거종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 비판적 읽기를 허용한다. 특히 이들 세 소설의 핵심 내용은 책임 윤리에 관한 진지한 성찰과 맞닿아 있다. 이것은 다양성과 차이의 수용을 요구하고 이를 재개념화하는 에코페미니스트의 노력에[3]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2) Adam Roberts, *Science Fiction*, Routledge, 2006, p.17.

3) Karren Warren, "The Power and the Promise of Ecological Feminism", *Environmental Ethics* 12, 1990, p.241.

윤이형은 꾸준히 과학소설을 발표해 왔고, 그의 소설은 포스트휴먼의 실험적 글쓰기로서 소수자 문학의 가치를 확인하는 성과와 의의로 주목받아왔다. 이들 소설에 등장하는 소수자는 사이보그와 여성, 노인, 동성애자 등을 아우르는데, 이들 소수자를 네트워크의 관계성을 부각하는 사이보그 개념으로 묶어 고찰하기도 한다.[4] 윤이형 소설의 선행 연구가 포스트휴먼과 젠더라는 키워드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런 형편과 유관하다. 그 중에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개별 연구의 초점과 방향이 조금씩 상이해진다. 크게 갈라 말하면 두 가지이다. 첫째는 테크노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본 고찰이고[5] 둘째는 복수정체성의 욕망이나 새로운 관계주체성을 매개하는 경계의 문제를 성찰하는 연구이다.[6] 과학기술과 젠더의 관계를 문제 삼는가, 아니면 과학기술과 정체성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선행 연구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차이점이 포스트휴먼의 조건과 문제에 깊이 뿌리를 둔다는 공통점을 능가하는 것은 아니다. 초연결자아의 균질화 가능성과 테크노휴먼의 타자화에 주목하는 것이 그것인데, 이들 소설이 재미있는 점은 SF의 상상력으로 이들 문제를 현실의 경험으로 성찰하는 점에 있다. 특히 과학소설과 사회현실의 경계는 착시에 불과하다는 것, 오히려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으로서 사이보그 은유는[7] 종의 경계를 넘는 연결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이 두

4) 최병구, 「경계 위의 사이보그: 여성, 노인, 동성애자」, 『인문과학』 제83집, 2021, 79-106면.

5) 서승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현대문학이론연구』77, 2019, 130-153면; 김윤정, 「테크노사피엔스의 감수성과 소수자 문학」, 『우리문학연구』65, 2020, 7-36면;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 『여성문학연구』49, 2020, 10-35면; 연남경,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9호, 2020, 105-139면.

6) 차미령, 「기계는 감수할 수 있는가」, 『인문학연구』 제35집, 2021, 91-114면; 홍단비, 「초연결시대, 복수 정체성에의 욕망과 문학적 상상력」, 『인문과학연구』 제69집, 2021, 7-30면.

7) 도나 해러웨이의 저항담론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비-자연주의의 방식으로, 개인의 발달과 역사라는 신화를 상관하지 않는 자리에서 젠더 없는 세계를 상상하는 유토피아 전통을 따르고자 한다. 그를 위해 사용하는 이미지가 사이보그이다(도나 해러웨이, 황희선 역,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에코페미니스트 윤리에서 그의 사이보그 은유를 주목하는 이유는 사

사실은 이방인의 의미나 타자화된 목소리를 포용하고 배제와 위계의 서사를 해체하고자 하는 에코페미니스트의 사유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 더욱 흥미로운 것이다.

잘 알다시피 지구의 탐욕스러운 소비자로 근대적 인간상을 정당화하고 장려하는 위계와 배제의 근대 서사는, 이성의 권위와 개인의 자율성에 특권을 부여하는 가운데 타자로서 신체와 여성과 자연과 비서구를 주변의 위치로 몰아내고 권리를 박탈하여 강등시킨다. 이 네 가지 범주는 탈근대의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지표가 된다. 그 일환인 에코페미니스트는 남성적 가치(동일성, 보편성, 남근성, 시각)가 동질적 표준으로 작동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여성적 가치(다양성, 구체성, 청각)를 승인한다. 특히 접촉하고 듣고자 함으로써 배려하고 공감하는 생태-돌봄의 윤리와 책임의 관계 윤리는 에코페미니스트의 핵심 가치가 된다. 말하자면 본질주의 이론이 여성을 남성에 못 미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에 반대하여 에코페미니스트는 여성을 남성과 다른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여성적 가치로 남근적 동일성의 전도에 참여하고자 한다.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여성-자연과 대립한 남성-문화의 이원론적 사고가 근대의 기초 패턴이 되고 있음을 인지한다. 발 플럼우드가 이성과 자연, 정신과 신체, 주인과 노예, 이성과 감정, 문명과 원시, 인간과 자연(비인간), 주체와 객체, 자기와 타인과 같은 대립 쌍을 열거하고 비판하는 것도[8] 이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그는 이원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대안이 되는 틀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남성성보다 여성성을, 또는 문화보다 자연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공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차이가 위계적 타자의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과 차이점은 단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 것뿐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는

이보그가 인간의 친밀성과 권력으로 잉태된 유기체/기계의 잡종으로서 경계 문제를 강력하게 소환하고 경계와 전쟁을 벌이는 존재론적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8) Val Plumwood, *Feminism and the Mastery of Nature*, Routledge, 1993, p.43.

것은 존중과 돌봄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준비가 되는 것이다. 에코페미니스트 윤리를[9] 모든 종류의 다른 존재에게 도덕적 고려를 확장하는 타자윤리로 요약하여 말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왜 에코페미니스트에게 과학소설과 사이보그가 중요한 화두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에코페미니즘의 지향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의 목표는 억압 패턴의 뿌리를 분석하고 해로운 적대적 사회 시스템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배려의 관계 윤리가 기반이 되는 생활 방식을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실천 운동인 것과 별개로 또한 철학 운동이자 문학 분석의 틀이 되었다. 짐 체니는 "윤리적 숙고를 맥락화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이 적절한 결론으로 나오는 내러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0] 이는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에코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보자면 과학소설은 억압 패턴의 기저에 깔린 이유를 탐구하고 타자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상상하고 모색하는 목적에 잘 부합하는 장르이다. 그 때문에 최근 에코페미니스트 작가들은 과학소설 장르에서 작업을 선택하는 추세에 있다.[11] 다나 해러웨이가 사이보그를 여성/남성, 기계/유기체, 동물/인간 등의 종간, 젠더간 경계를 포함하는 형상으로 재개념화한 것도[12] 탈근대의 사유 속

9) 카렌 워렌은 에코페미니스트 윤리를 8가지 개념에 기초하여 설명한 바 있다. Karen Warren, *Ecofeminist Philosophy*, Rowman&Littlefield, 2000, pp.98-101.

10) Jim Cheney, "Eco-Feminism and Deep Ecology", *Environmental Ethics 9*, no.2, 1987, p.144. 특히 카렌은 일인칭 서사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한다. 서사 장르의 특징인 구체적 상황설정, 즉 맥락화는 에코페미니스트 이론과 윤리의 성격에 부합한다는 점과도 유관하다. 그들 이론과 윤리는 단순하지 않은 복잡성을 지니는데, 그것은 고정되고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이론과 윤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황적이며 역사적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이들 이론을 '과정 이론'이자 '퀼트 윤리'이라고 명칭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Karen Warren, Ibid., pp.97-123.

11) Irene Sanz Alonso, "Ecofeminism and Science Fiction", Edited by Margarita Estévez-Saá & María Jesús Lorenzo-Modia, *The Ethics and Aesthetics of Eco-caring: Contemporary Debates on Ecofeminism(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9, p.98.

에서 보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사이보그가 인간의 신체 기능을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대체하면서 인간의 몸과 기계의 경계는 흐려진다. 「대니」의 안드로이드 베이비시터 '대니'나 「수아」의 가정용 로봇 '수아', 그리고 「굿바이」의 기계신체 전환인간 스파이더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몸은 아니지만 우리 몸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대신한다는 점에서 인간과 기계는 연결된다. 이처럼 경계의 문제를 강력하게 소환하는 기술시대의 타자 사이보그 은유는 타자의 복잡성을 지니고 그럼으로써 더 크고 복잡한 이원 안에서 인간(남성)을 탈중심화한다. 그러므로 에코페미니즘의 윤리적 숙고와 사이보그의 관계를 좀 더 살필 필요가 있겠다.

기술시대의 몸을 사유하는 데 중요한 착안점을 제공하는 사이보그는 인간과 기계와 동물을 연결 짓는 데 유용한 제재가 된다. 짐 체니의 '윤리적 숙고'로 말하자면, 사이보그에 도덕적 고려를 확장한다는 것은, 동물해방주의의 '도덕적 확장주의'와 완전히 다르다. 동물해방주의가 인간의 입장에서 고려할 가치가 있을 만큼 인간을 닮거나 인간과 친밀해서 도덕 클럽에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다는 말이다. 그의 윤리적 숙고는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말해서 인간에게 비인간 세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 고도로 맥락 짓는 시도이다.[13]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윤이형 소설의 사이보그는 매우 섬세하고 예민한 질문으로 윤리적 숙고를 촉구한다. 그럼으로써 그의 소설은 구체적인 서사적 맥락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상황에 논쟁의 여지를 던지는 힘을 가진다. 특히 이들 소설이 각별한 것은 기계/인간의 타자성을 드러내고 아울러 그를 통해 인간 자신의 타자성을 반추함으로써 타자의 타자성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타자는 자기 자신의 부정적 반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자신도 '타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윤이형 소설의 '타자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12) 도나 해러웨이, 앞의 책, 17-30면.

13) Jim Cheney, Ibid., p.143.

윤이형의 두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타자에 대한 질문 양상과 그의 윤리미학적 숙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의 순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사이보그 형상[14]이 가지는 관계 윤리적 계기에서 출발할 것이다. 이들 소설의 사이보그 형상은 이원론적 사고가 만드는 경계와 질서를 넘어서고자 하는 저항적 움직임을 함축하는 동시에 차이를 존중하는 관계 윤리를 성찰하게 하는 상징적 육화에 해당한다. 이런 전제에서 시작하여 적대적인 사회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이원적 질서의 의미를 추적하게 될 것이다. 이른바 정보기술지배의 조건에서 이원 체계는 보다 더 복잡해진다. 그에 따라 이러한 사회 조건의 변화가 던지는 물음, 즉 책임진다는 것과 공생하는 것에 관해 던지는 첨예한 SF의 물음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전체 소설을 놓고 보았을 때 윤이형 소설은 타자의 관계학이라고 할 만하다. 그 중에서도 이들 소설은 포스트휴먼의 조건에서 상상할 수 있는 까다로운 관계를 설정해놓고 타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새로운 주체성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이 글은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이보그 형상이 가지는 에코페미니즘의 윤리적 계기를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14) 사이보그는 유기체와 기계가 결합한 존재로 한정되지만, 여기에서는 경계 위에서 경계를 사유하는 기계 존재를 사이보그 형상이라고 통칭한다. 테크노휴먼은 로봇,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사이보그로 세분할 수 있다. 캐서린 헤일스(『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열린책들, 2013, 162)에 의하면 사이보그 형상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영역에서 신체의 영역을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장소를 암시한다. 다나 해러웨이(「사이보그 선언」,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6, 85-86)는 사이보그 이미지가 두 개의 핵심 주장을 표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는 보편적이고 총체화하는 이론을 고안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자와 연결되고 소통함으로써 일상의 경계를 능숙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초연결자아의 출현과 에코토피아(ecotopia)의 길목에서 만나는 차이의 문제

「굿바이」는 특이한 서술형식을 가지고 있다. 서술자 '나'가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시점으로 하고 있다. 서술자가 당신의 태중에 있는 아기라는 설정에서 가능해진 서술시점이다. '나'는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속속들이 꿰고" 있고 지혜와 천리안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을 렌즈처럼 이용해" 세상을 보고 "당신이 보는 것을 보고 당신이 듣는 것을 듣는" 것이다. 서술형식으로 말하면 전지적인 서술자가 인물초점으로 서술한다고 밝히고 있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전지적인 서술자가 텍스트 바깥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가진다면, 「굿바이」의 서술 목소리는 태내에서 울려나온다.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에덴의 시간을 연상시킨다는 것, 지혜를 가진 천리안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매개로 천상과 태내는 연동된다. 게다가 태아 서술자는 간간이 맹목적인 모성의 희생과 젠더화된 타자의 열악한 삶을 자기 목소리로 발화하기도 한다. 이는 소설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도 왜 태아인가의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태아 설정은 마지막 장면을 위한 예비 장치라고 여겨지는 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장면으로 가는 서사 경로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굿바이」에서 주목할 것은 당신의 서사와 스파이디의 서사가 이끄는 세계의 성격이다. 인간인 당신은 젠더화된 타자로서 빈곤과 희생이 대물림되는 삶을 살고 있으며, 기술과학시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오래된 인간의 관습으로 살고 있다. 기계 신체로 전환한 스파이디에게 원래 신체로 리턴하는 시술을 권유하고 갱생 상품을 파는 그녀의 직장 업무가 스파이디와 접점을 만든다. 스파이디 '그녀'는 어떤 생명도 착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새로운 공동체의 실험에 참여하지만 그들의 실험은 실패하고 만다. 스파이디는 리턴 시술을 거부하고 자신의 원래 신체를 소각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인간인 당신과 스파이디인 그녀는 '오래된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대변하는 셈인데, 이 두 세계가 대비되고 교차하며 섞여드는 것이 이 소설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다.

스파이디의 화성 프로젝트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의 실험이다. 스파이디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피부로 태양광선을 받아" 에너지로 쓰는 기계신체는 인간 신체의 한계와 유지비용을 뛰어넘을 수 있고 많은 작업을 소화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돈은 무용해지고 수명은 길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의 어떤 생명도 착취할 필요도 없고 착취당하지 않을 수 있다. 스파이디들은 동일한 신체를 가지고 있고 서로 전자뇌를 연결할 수 있어서 다르지 않은 같음의 평등을 실현할 수도 있다. 무한의 소통과 공감으로 내밀한 생각과 감정까지 나눌 수 있다. 전자뇌로 가능해진 접속토론으로 자기가 직접 겪지 않은 경험과 정보를 업그레이드하고 무한 증식하며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새로운 공동체의 실험은 에코토피아로 가는 길이라고 간주할 만하다. 그들은 에코토피아로 가기 위해 기계신체가 필요했다.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탈지구와 탈인간의 방법이다.

그런데 스파이디의 공동체 실험은 고군분투 끝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여로를 보여준다. 그것은 "나와 네가 다르지 않고 같다는" 정량적 평등과 낭만적 꿈에 함정이 예비되어 있다고 할 만한 것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과 다시 던져보아야 할 질문을 부각한다.

> 첫해에 우리는 우리의 뇌가 연결되는 방식을 패턴화해 전자신호로 된 언어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접속을 하고 끊는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아에 일종의 세포벽 같은 최소한의 경계를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 결과 기이- 기적적으로, 개별적인 인격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67면)

스파이디의 삶은 단순하고 명쾌한 데가 있으며 스파이디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삶이 인류의 미래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 동의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명쾌하고 단순한 삶의 핵심에는 차이의 최소화와 그에 따른 평등한 소통이 있다. 모두 몸이 똑같이 생겼고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공감과 이해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예상과 달랐다. "개별적인 인격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작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차이의 해소와 공감의 극대화가 역설적으로 언어 상실과 소통 불능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만들어놓았다. 탈인간의 낙관은 고스란히 인간의 근원 문제로 회의되고 부정된다. "인간이라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공동체의 존속 자체에 의미가 없지 않겠냐"는 탈인간의 낙관은, 사람의 "근원을 그렇게까지 억지로 부정하는 것이 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는 반문을 촉발하는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탈인간과 탈인간중심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를 묻는 질문으로 이해된다. 탈인간중심적 선회는 인간-남성을 특권화하는 위계적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지 인간이기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탈인간중심주의는 오히려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두고 같은 것은 같은 것대로 두면서 서로를 연결 짓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탈인간중심주의는 탈인간이 능사가 아니라 인간 타자이든 비인간 타자이든 타자에 얽혀들 때 자신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라는 요구를 포함하는 것이다.

휴머니즘 비판이 안드로포스[15]의 휴머니즘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에

15)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의 안드로포스(anthropos)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안드로포스는 그노시스 세계에서 최고의 신격과 동일한 '빛의 인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의 것들로 지향하는 남근'은 물질 속에 가라앉은 것이면서 동시에 빛을 향해 돌아갈 것을 고대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가 개별적인 인간의 내면의 혼이자 전체 인류의 집단혼으로 여겨지고 경험되었다면(마리-루이제 폰 프란츠, 이부영 역, 『C. G. 융』, 한국융연구원, 2016, 133-135면), 신화적 상으로서 안드로포스는 데카르트적 관념 안에서 근대의 인간상으로 새롭게 살아남아있다.

향해 있는 것이라면, 특히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운명을 가졌다고 믿는 자율 주체의 자유주의 전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전적으로 "인간이라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대하는 관계의 문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파이디는 기술 매개를 통한 초월성을 주장함으로써 과장된 탈신체화와 트랜스휴머니즘적 도피의 판타지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의미는 「굿바이」를 통어하는 서사 전략 안에서 이해된다. 자세히 말하면 스파이디의 '새로운 세계' 곁에 당신의 '오래된 세계'를 놓고 있는 전체 서사 구도에서 읽히는 것이다.

「굿바이」의 스파이디는 생명공학기술로 매개된 타자이다. 기술적 타자 스파이디는 인간이 현대 일상에서 만나거나 상상할 수 있는 타자 중에서도 매우 낯선 강력한 타자이다. 이른바 포스트휴먼의 곤경이라고 할 만한데, 이는 유기체와 비유기체, 태어난 것과 제조된 것, 살과 금속, 전자회로와 유기적 신경 체계 같은 존재론적 범주나 구조적 차이의 분할선을 바꾸라고 요구한다.[16] 소설에서 이러한 곤경을 마주한 인물이 인간-당신이다. 당신은 스파이디의 기계 신체가 진저리나게 두려워지는 것이다. "그 육체들에는 무언가 그릇된 데가 있다고 당신은 생각"한다. 당신의 시선으로 보면 스파이디는 "심하게 부자연스러운 것.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몸"이다. 당신은 스파이디의 뇌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갑자기 미쳐 폭주하는 기계 인간"을 상상하는 것이다. 당신은 기계와 기술세계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과 경계심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기계 신체에 대한 이물감과 공포감은 스파이디와 친밀한 상호관계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스파이디도 당신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이끄는 삶, 즉 평생을 희생하면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빈곤하게 살아온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태중의 아기를 위해 자신

16)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118면.

을 헌신하려는 것, 기술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전혀 향유하지 못하는 것은 오리지널의 자부심이 아니라 퇴행의 어리석음으로 이해된다.

작가는 이처럼 '오래된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대립시켜놓고 두 세계가 서로를 타자화하는 서사경로를 마련해놓았다. 인간-당신은 그녀의 세계를, 스파이디-그녀는 당신의 세계를 끝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녀는 인간신체로 복귀하기를 거부하고 원래의 신체와 삶을 영영 버린다. 당신은 자신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유기적 신체와 생성력을 버리는 스파이디를 도대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소설이 각별해지는 것은 마지막 대목의 반전을 기다려서이다. 두 세계의 평행에도 불구하고 상호 보살핌의 대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스파이디 그녀를 불경하게 여기면서도 당신은 그녀의 원래 몸을 "이상하게도 그와 동시에, 그냥, 그렇게"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스파이디 그녀 자신도 출산하려는 당신을 끝내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당신의 보호자가 되고, 특히 아기의 '탯줄'을 잘라준다. 이들의 '마음'과 '행위'는 "이해받지 못해도, 설명할 수 없어도 지킬 수밖에 없는 어떤 약속"이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그것은 의식하거나 노력한 것이 아니라, 배려의 감수성과 생명의 확신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것이라는 점이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렇게 생명과 삶 자체에 대한 일종의 믿음이 실천되는 이 대목에서 카렌 워렌이 말한 영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에코페미니스트 영성에 대한 워렌의 설명에 의거하면 영성은 '자신의 개인적인 자아 외에 다른 생명을 긍정하는 힘이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다.[17] 「굿바이」에서 이 믿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어떤 유형의 종교나 영적 숭배의 수행자로 묘사되지 않는다. 이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로 신들린 여자가 되어버리는 과시적 관능의 표현과 또 다른 차원의 것인데, 말하자면 현재 순간에서 느끼는 생명에 대한 자기 확신 같은 것이다.[18]

17) Karen Warren, Ibid., p.198.

18) 카트린 클레망 · 줄리아 크리스테바, 임미경 역, 『여성과 성스러움』, 문학동네, 2002, 23-25면.

인간의 기억을 전자뇌에 이식하는 생명공학기술의 미래세계에서, 더구나 교육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자기통제가 좀더 일상이 된 세계에서, 영성의 의미는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엑스터시에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해불가능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납득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낯선 타자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다. 소설에서 그런 순간적인 도약을 촉발하는 힘은, 모성의 비판담론이든 생명 관리의 권력이든 그 어느 쪽에서도 진지한 질문 대상이 되지 않는 '생명' 그 자체에 반응하고 감응하는 확신이다. 스파이디 그녀의 행위는 자신의 신념 안에서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합리화한 끝에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 도약한 영성의 차원에서 이해된다. 「굿바이」가 전체적으로 절망의 분위기를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스럽지 않은 것은 마지막 대목에 힘입은 바가 크다. 여기에서 생명의 믿음과 존중은 참을성 있는 내일에 대한 느낌과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모종의 공모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굿바이」의 태중 서술자를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태어난 상징적인 자손(즉, 제 3의 존재의 탄생)으로 이해할 수 있다.[19]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더 볼 수 있는 것은 작은 생명체의 탄생에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찾아 갈등과 이질감과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다. 태중의 서술자가 탄생 직전에 자기 목을 탯줄로 감아버리는 것은 두 세계에 희망이 없음을 직설하는 것일 텐데, 아기의 탄생방식은 희망 없는 신념(스파이디-그녀)과 무지한 희망(인간-당신) 사이에서 경계를 가로질러 흐르는 생성력이라는 은유적 메시지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른바 로지 브라이도티가 말하는 횡단적 자아를 떠올리게 되는데,[20] 이는 포스트휴먼시대에 만나게 되는 생태적 자아로 간주할 만하다.

19) 연남경, 앞의 논문, 118-119면.
20)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책, 38-39면.

3. 오만한 목격자의 타자성 인식

스파이디의 새로운 공동체 실험은 유토피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패의 상황과 이유를 고려하면 다소 디스토피아적이다. 그런 점에서 「굿바이」가 유토피아의 불가능이라는 절망을 엔딩으로 하는 소설이라고 할 만도 하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스파이디-그녀가 인체의 복귀를 거부하고 불확실하지만 미래의 신념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녀와 당신이 우정과 상호 돌봄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 설명할 수는 없어도 지킬 수밖에 없는 생명에 대한 약속 같은 것은 출구 없는 절망의 느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을 생태적 유토피아(Utopia)가 아니라 생태적 유토피아(Eutopia)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일이다.

생태적 유토피아(Eutopia)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못한 고정적인 것(Utopia)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는 좋은 장소이다.[21] 그러므로 에코토피아로 가는 길은 자신의 본질을 재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와 실패로 도전을 받으면서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는 일과 같다. 이런 에코토피아로 가는 길목에서 「굿바이」가 미약하나마 희망을 보여주는 소설이라면, 다른 소설 「수아」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묵직한 물음을 함축하는 소설이다.

「수아」는 인간과 로봇이 자연스럽게 공거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인류의 재정의를 촉구하는 상상의 실험장소를 보여준다. 이 소설이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을 인간 자신이 아니라 로봇 수아가 시작한다는 점이다. 수아들은 수아-3726, 수아-28329라 하는 식의 일련번호로 구별되는 로봇이다. 주인공의 집에 있던 수아는 일련번호가 수아

21) Patrick D. Murphy, Lecture: "Ecofeminism and Science Fiction", Seminar on the Multiple Facets of Ecofeminism, Instituto Franklin, Universidad de Alcalá, 5 March 2014.(as cited in Carmen Flys Junquera, "Ecofeminist Replicants and Aliens: Future Elysiums through an Ethics of Care", Edited by Margarita Estévez-Saá & María Jesús Lorenzo-Modia, Ibid., p.113)

-687(이하, 수아)이었으니 꽤 초기모델이고 당시에는 유능한 가정용 로봇이었다. 주인공의 말마따나 “전자제품”인지라 시간이 지나자 수아는 업무 속도가 느려졌고, 주인공은 그런 수아를 업데이트 한 후에 도서관 상주 로봇으로 보냈다. 그것이 7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4년 전에 사라졌다던 수아가 다른 수아들과 함께 반란군으로 나타났다. 소설 「수아」의 줄거리에서 중요한 사건은 언어를 익히고 자기존재를 의식하며 권익을 주장하는 로봇 수아들의 반란이다.

수아들의 반란을 핵심 줄거리로 놓고 보면, 작가의 서사 전략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름 아니라 그것은 인간에게 비인간 세계가 무엇인지, 타자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와 관련한 관계성과 타자성의 발견 문제이다. 가령 「수아」에서 인간과 수아들의 묘사된 관계는 매우 모호하다.

「수아」는 로봇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공동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수아들 중 한 명이 위원으로 발탁되는 가상 미래 세계를 그려놓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비인간 존재처럼 수아들은 포스트휴먼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인간과 로봇은 서로 모호한 위계 속에서 섞여 살고 있다. 소설 세계에는 제도적으로 표 나는 계급 위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암암리에 성차별과 종차별이 팽배하고 서로 혐오감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인간들 중 일부는 “수아들을 잡아서 전부 포맷하는 일이 불법이 되지 않게 법을 고쳐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일부는 주인공 중년 여성과 그녀의 동료인 윤경, 설희, 규은인데, 이들 지식인 여성은 차별을 반대하고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한다. 이들 인물은 스스로 그렇다고 믿고 자부하는 것인데, 그 믿음과 자부심은 소설 현실에서 그녀들이 기계를 대하는 복잡하고 모호한 이중 태도를 부각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가령 윤경은 로봇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차별금지주의자로서 공동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다. 그런데 그녀는 수아들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이유는 윤경이 수아들의 권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기분 좋을 리 없는 윤경이 무심코 내뱉는 말,

“이런 수모를 겪어본 적이 없었다. 하물며 사람이 아닌 로봇에게는 더더욱”에는 명백하게 종차별과 위계주의가 엿보인다.

「수아」의 세계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 그 세계는 차별금지주의자인 주인공의 시선으로 포착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주인공의 시선이 자신의 종차별과 위계의식을 부지불식간에 폭로하는 아이러니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작가와 독자는 아는데 초점자인 주인공만 모르는 것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인 셈이다. 차별금지주의자 주인공과 가정용 로봇 수아의 관계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오만한 목격자의 시선으로 조망되고 그 과정에서 타자성의 진실이 발견되는 것이 소설의 서사기둥이 되고 있다.

가령 이런 것이다. 주인공은 “나는 수아를 충분히 인간적으로 대우했다. 인간과 다른,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회고한다. 그러는 한편 주인공은 인간과 같아지는 로봇에 대해서 특별한 경계감(“불쾌한 골짜기”)을 드러내며 다리를 원하는 수아의 요구를 묵살해왔다. 신체인 다리는 수아에게 자유를 의미하지만 주인공에게는 “불쾌한 골짜기”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주인공은 노후한 수아를 도서관 상주 로봇으로 보내고 나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내가 수아에게 베풀어줄 수 있는 최선의 호의였어. 나는 수아를 버린 게 아니야”)를 하며 내심 불안한 죄책감에 빠져든다. 수아들의 테러 소문과 뉴스를 믿지 않으면서도 그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드는 것도 어쩌지 못하는 주인공이다. 이런 일련의 모습은 자기 신념과 자기 행동의 불일치를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는 데에 따른 생태적 양심이라고도 간주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고만 넘어가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던질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것이다. 주인공은 왜 자신의 행위에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는가. 대답을 하자면 주인공은 합리화할수록 불안감이 증폭되고 죄의식은 말끔해지기는커녕 잉여가 남기 때문인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주인공이 미처 깨닫지 못한 오해를 간파할 수 있다. 자세하게 말

하면 주인공이 차별금지주의자라는 자의식 속에서 인간중심주의의 자비와 베풂을 타자 존중과 배려 윤리로 혼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주인공이 수아에게 베푼 선의와 친절은 배려와 연민의 외양을 띠지만 그 내면에는 우월한 인간의 위치가 전제되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수아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존하고 포용해야 하는 '당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주치의가 내게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운동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고, 사실 수아 같은 가정용 로봇을 집에 두는 것은 유행이 살짝 지난 지점이기도 했다.")가 되면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다.[22] 그러니까 수아를 대하는 주인공의 태도는 지배자인 인간종의 호의, 즉 비인간 타자들에 대한 안드로포스의 자비이자 베풂으로 이해할 만한 것이다. 에코페미니스트의 존중과 배려를 놓고 생각하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존중과 배려는 타율적 기질이자 실천 행위이다. 타율성은 타자 중심으로서 친밀감이나 접촉감에 기반하며, 이것은 윤리적인 책임영역으로 연결된다. 존중과 배려는 권리라기보다 미덕이다.[23] 존중과 배려에서 강조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타자'이다.

주인공의 죄의식과 합리화에는 차별금지주의자라는 자기 판단과 근대 휴머니스트의 상속자 사이의 낙차가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다. 윤이형의 소설이 추구하는 타자에 대한 예민한 질문법인 셈인데, 작가는 여기에서

22) 정화열은 인간중심주의가 전제된 안드로포스의 선의를 베이컨의 '박애'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의 부연을 소개하면, 베이컨은 성서 독해에서 박애 개념을 도출해내고 있다. 인간은 신의 창조물 가운데 그 정점을 차지하고 신성시되는 것에 비해, 자연은 신성하지 않은 것으로서 인간에 속하고 인간을 주인으로 섬기며 인류를 위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성서적 명령에 의거하여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 지식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박애란 일차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숭배를 뜻하며, 그런 전제 아래 기독교적 의무 이행과 자선 행위의 실행을 의미한다. 베이컨은 인류의 곤경에 무관심한 지식인을 가리켜 박애심이 없고 염세적인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정화열, 박현모 역, 『몸의 정치』, 민음사, 1999, 184-186면). 주인공의 기계 타자를 대하는 호의는 자연 타자를 대하는 선의의 구조와 닮아 있다.

23) 배려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은 정화열의 앞의 책(197-210면) 참조.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 장면을 마련해놓았다.

4년 전에 사라졌던 수아는 다리를 가지고 테러범이 되어 주인공 앞에 나타났다. 수아는 이 소설의 서사적 핵심인 세 개의 질문을 던진다.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봐"이고, 두 번째 질문은 "수아가 누구야?"이며 세 번째 질문은 호소이기도 한데 "왜 우리는 같은 존재일 수 없다고 생각했어, 엄마?"이다.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면 세 질문은 인간의 조력자로서 삶의 중요한 일부였던 수아가 '뇌가 망가진 괴물'로 나타난 것이다. 포스트휴먼의 곤경 속에서 수아의 질문을 이해하면, 그것은 매우 기괴하고 위법적인 방식으로 인간과 기계 존재의 경계 위에서 경계의 사유를 촉구하는 것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기계 타자와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책임지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제대로 된 답을 모르고 있다. 대신 폭력적인 대치로 오줌을 지리는 공포에 떨며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는 무력해진 자신을 발견해야 했다. 수아의 질문에 그로서는 가장 참혹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을 다 줄게. 제발 나를 보내줘. 목숨만은 살려줘. 수아야 이러지마, 너는 내가 누군지 알잖아....",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왜,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러니까 주인공은 끔찍한 재난을 겪고 있고 겁에 질려 목숨을 부탁하는 "가장 절박한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수아의 세 질문이 기괴하고 위법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태에서 던져졌다면, 아마도 그 질문은 안드로포스 주인공에게 그다지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너와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질문의 방식은 둘째치고라도 그 내용 자체가 섬뜩하고 난감하기는 하다. 그러나 질문의 핵심은 인간 자신이 아닌 존재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성찰을 촉구하는 것이다. 수아의 질문은 '빨간 피', '아픔', '눈물' 등 섬세한 감정이나 풍부한 기억의 지표로 인간의 정체성을 분별하

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연을 포함한 비인간 존재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윤리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소설적 대답은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암시된다.

> 기묘한 무음의 상태 속에서 까맣고 육중한 카메라 몸체가 하나둘씩 남자들의 얼굴을 덮어 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이는 일이 사람으로서 부끄러워 차마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무도 내게 와주지 않았고, 대신 수십 개의 렌즈들, 휴대폰에 달린 동그란 눈동자들이 동물들의 눈처럼 흔들리며 나를 향했다. 수천수만 개의 장소로 한꺼번에 나를, 내 육체를 쏘아 보낼 수도 있는 눈들이었다.
>
>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으로 쓰러지며 나는, 그제야 수아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희미하게 생각했다.(340면)

주인공은 수아의 암묵적인 묵인 아래 탈출에 성공한다. 호텔 38층 객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포기한 주인공은 비상계단으로 뛰어 내려가 로비층에 이른다. 그때 그가 맞닥뜨린 것은 타자를 이해하고 환대하려는 '사랑의 눈'[24]이 아니라 타자화의 거리를 둔 "수많은 카메라맨들의 눈", 이른바 '오만한 눈'이었다. 사람들이 잔혹한 재난에 처한 자신의 육체를 가련하게 여기고 덮을 것을 가져와 보호해줄 것이라고 주인공은 믿었다. 그러나 누군가 다가오기는커녕 제자리에 서서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들이 "동물들의 눈처럼 흔들리며" 주인공을 향하고 있을 뿐이다. 주인공은 "그제야 수아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희미하게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수아처럼 '타

24) 카렌 워렌(Karen Warren, Ibid., p.104)이 '오만한 눈'과 비교하여 '사랑의 눈'을 언급하였다. '오만한 눈'이 닮음과 유사성에 근거하여 병합하고 침입하려고 하며 윤리적인 고려를 하더라도 도덕적 위계가 있는 한편, '사랑의 눈'은 처음부터 독립적이고 다른 것으로 인식되는 타자에 대하여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오만'과 '사랑'의 시선 혹은 인식은 보살핌과 정복에 대한 윤리적 차이를 드러낸다.

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다.

이쯤에 이르면 해러웨이가 "기술과학을 상상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대신하도록" 사용하는 비유 '겸손한 목격자'를 떠올릴 수 있겠다. 이때 '겸손'이란 타인의 설명가능성에 방심하지 않는 것, 차이를 가진 다양한 타자들이 보고 증언하는 것들을 중요한 지식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 상황적 지식 혹은 부분적 시각의 특권에 몰두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꺼이 하려는 주체의 의지 혹은 능력과 관련 있다.[25] 정체성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겸손한 목격자는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타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생태적 인간의 비유라고 할 만하고 책임과 배려에 민감한 윤리적 자아와 부합한다.[26] 「수아」의 마지막 대목은 타자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듣지 않는 주인공의 오만한 눈이 겸손한 목격자의 사랑의 눈을 발견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수아」는 "인간과 유사한, 혹은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로서의 로봇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현대 사회의 여성 혐오와 멸시의 문제를 인간과 로봇의 관계로 대응하여 서사화"[27]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중심주의와 남성중심주의는 자연, 젠더, 종, 계급에 대해 동일한 지배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점을 참조한다면 「수아」의 로봇이나 「굿바이」의 사이보그는 젠더의 영역에서 보다 확장된 타자의 영역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기술시대에 우리가 만나거나 상상할 수 있는 좀 더 이질적이고 강렬한 타자성을 지닌 이미지로서 '함께 관계하며 존재하기'를 생각하게 하는 강력한 은유라는 점에 그러하다. 이것이 작가 윤이형의 SF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25) 다나 J. 해러웨이, 민경숙 역, 『한 장의 잎사귀처럼』, 갈무리, 2005, 241-250면.

26) Karen Warren, Ibid., p.107-8. 그는 배려/돌봄에 민감한 윤리를 '돌보는 능력' '윤리를 위한 감성 지능의 함의, 상황적 보편성, 이렇게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27) 김윤정, 앞의 글, 23면.

4. 결론: SF와 에코페미니즘의 윤리적 계기

이상으로 윤이형의 소설 「굿바이」와 「수아」를 살펴보았다. 이들 소설에 중요하게 드러나는 쟁점은 계급주의, 성차별주의, 종차별주의를 둘러싼 타자에 대한 질문이다. 이들 소설에 등장하는 타자 은유로서 기계적 존재는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까다로운 대립뿐만 아니라 문화적 충돌과 전통적인 성 역할과 또한 전통적인 구별의 역전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럼으로써 타자의 영역이 나날이 확장되고 있는 정보과학기술시대에 보다 더 긴급해진 타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보다 더 첨예해진 관계 윤리를 성찰하게 한다. 사이보그와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친밀해진, 그러나 이질적인 타자로 등장하는 소설세계를 놓고 독자는 '함께 관계하며 존재'하는 타자 윤리를 사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에코페미니스트의 윤리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거니와 특히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개념화하려는 에코페미니스트의 탐구와 연결된다.

'차이와의 만남'으로 SF의 장르 성격을 요약할 수 있듯이, SF는 타자성을 탐구하기 위해 대중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허구 형식으로 간주된다. 에코페미니스트가 SF 장르에 관심을 가지고 SF와 관련하여 많은 작업을 하는 추세도 이런 장르 성격과 유관하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친밀한 것을 기꺼이 괄호에 넣고 대신에 낯설고 두려운 타자 세계로 들어가는 용기를 감수하는 것이 에코페미니스트가 지지하는 영적 윤리라면, SF 상상력은 인공적인 것, 이질적이고 혐오스러운 것, 공포스러운 미지의 것으로 타자 세계를 구현하고 익숙한 것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에코페미니스트의 영적 윤리와 SF의 상상력은 경계의 위에서 경계를 성찰하는 해체적 사유를 공유한다.

'차이와 만남'이라고 할 때 '차이'는 '대립'과 다르게 타자 본위의 토대를 이룬다. 대립은 남근일원주의와 동질화의 평등을 전제하면서 성립된다. 다르면 그것이 일원이 되지 못하고 배제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차이는 사회적 관계의 근간으로서 타자의 타자성을 받아들이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 타자의 세계가 이해되고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면, 윤이형의 SF 상상력은 기술로 매개된 타자를 등장시키고 그를 통해서 소외된 담론의 관점을 표현하는 상징적 문법을 제공하고 있다.

에코페미니스트의 시각으로 보면 두 소설의 공감과 배려 혹은 그것의 부재 묘사는 관계적 자아의 형성이 역설되는 지점이다. 포스트휴먼의 자질이 신체 형성에 인체공학이 개입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주체성이 구성되는 방식에 있다면,[28]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포스트휴먼 시대에 주체성이 구성되는 어떤 방식을 상상할 수 있는가. 윤이형 소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이다. 이들 소설은 차이는 차이대로 두고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대화적 관계에서 환기되는 새로운 주체성의 모델을 천착하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의 중요한 목표를 두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는 다른 인간 타자, 그리고 자연을 포함한 비인간 타자를 예속된 위치에 두는 억압 패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구의 다른 존재들을 향해 존중을 기초로 한 윤리를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지배를 종결짓고자 하는 것이다. 종간상호의존관계에서 인간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중요하게 묻고 있는 두 소설 「굿바이」와 「수아」는, 에코페미니즘의 윤리로 독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있는 텍스트로 판단된다.

28) 캐서린 헤일스,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열린책들, 2013, 25-26면.

| 참고문헌 |

윤이형, 「굿바이」, 『러브 레플리카』, 문학동네, 2016.
_____, 「수아」, 『작은마음동호회』, 문학동네, 2019.

정화열, 박현모 역, 『몸의 정치』, 민음사, 1999.
Braidotti, Rosi, 이경란 역,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Clement, Catherine · Kristeva, Julia, 임미경 역, 『여성과 성스러움』, 문학동네, 2002.
Franz, Marie-Louise von , 이부영 역, 『C. G. 융』, 한국융연구원, 2016.
Haraway, Donna J., 민경숙 역, 『한 장의 잎사귀처럼』, 갈무리, 2005.
_____, 황희선 역, 『해러웨이 선언문』, 책세상, 2019.
Hayles, N. Katherine,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열린책들, 2013.
Plumwood, Val, *Feminism and the Mastery of Nature*, Routledge, 1993.
Roberts, Adam, *Science Fiction*, Routledge, 2006.
Warren, Karren, *Ecofeminist Philosophy*, Rowman&Littlefield, 2000.

김미현, 「포스트휴먼으로서의 여성과 테크노페미니즘」, 『여성문학연구』49, 2020, 10-35면.
김윤정, 「테크노사피엔스의 감수성과 소수자 문학-윤이형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65, 2020, 7-36면.
서승희,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 과학, 서사」, 『현대문학이론연구』77, 2019, 130-153면.
연남경, 「여성 SF의 시공간과 포스트휴먼적 전망-윤이형, 김초엽, 김보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제79호, 2020, 105-139면.
차미령, 「기계는 감수할 수 있는가」, 『인문학연구』제35집, 2021, 91-114면.
최병구, 「경계 위의 사이보그: 여성, 노인, 동성애자」, 『인문과학』제83집, 2021, 79-106면.
홍단비, 「초연결시대, 복수 정체성에의 욕망과 문학적 상상력」, 『인문과학연구』제69집, 2021, 7-30면.
Alonso, Irene Sanz, "Ecofeminism and Science Fiction", Edited by Margarita Estévez-Saá & María Jesús Lorenzo-Modia, *The Ethics and Aesthetics of Eco-caring: Contemporary Debates on Ecofeminism(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9.

Cheney, Jim, "Eco-Feminism and Deep Ecology", *Environmental Ethics 9*, no.2, 1987.

Murphy, Patrick D., Lecture: "Ecofeminism and Science Fiction", Seminar on the Multiple Facets of Ecofeminism, Instituto Franklin, Universidad de Alcalá, 5 March 2014.(as cited in Carmen Flys Junquera, "Ecofeminist Replicants and Aliens: Future Elysiums through an Ethics of Care", Edited by Margarita Estévez-Saá & María Jesús Lorenzo-Modia, Ibid., p.113)

Warren, Karren, "The Power and the Promise of Ecological Feminism", *Environmental Ethics* 12, 1990.

<Abstract>

Questions about others in Yoon Yi-hyeong's novels from an ecofeminist perspective
−For the short story "Goodbye" and "Suah"

Jeong, Yeon-Hee

Yoon Yi-hyeong's short stories "Goodbye" and "Suah" are works that ask questions about what humans are and how they exist in the network of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between technohumans and human species. This study judged these novels to be texts that open up many possibilities for approaching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ecofeminism, and examined these novels specif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thics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Yoon Yi-hyeong's cyborg novel focuses on the problem of the possibility of homogenization of hyper-connected egos and the othering of technohumans. What's especially interesting about his novels is that they reflect on these issues through real-life experiences using the imagination of science fiction. The boundary between science fiction and social reality is nothing more than an illusion, and rather, as a hybrid of machines and organisms, the cyborg metaphor raises the contemporary problem of connections that cross species boundaries. These two facts are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ecofeminist ethics that embrace the meaning of strangers and otherized voices and seek to dismantle narratives of exclusion and hierarchy.

The overall narrative structure of "Goodbye", which juxtaposes the

"new world" of the machine man Spidey and the "old world" of you, the human, is read as a key strategy.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worlds strengthens the mutual otherness of the machine-converted human and the original human, grows into the incomprehensibility of the two worlds, and leaps to the certainty of life in the final part. In fact, it is an illogical narrative development, but it can be regarded as a narrative form that corresponds to the meaning that incomprehensibility is not understood rationally but at the level of spirituality that is accepted despite fear. Another novel, "Suah," is a novel that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what humans are through the confrontation between humans and robots, and what kind of beings humans are in a world where humans and robots coexist. It shows a place for imaginary experiments that urge the redefinition of humanity through the arrogance and anxiety of anthropocentrism, and the ending of "Suah" lies in humans, as arrogant witnesses, recognizing their own otherness through unfamiliar gaze.

The machine people and robots in the two novels, "Goodbye" and "Suah," metaphorically represent the more heterogeneous and intense otherness that we can encounter or imagine in the era of domin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can be said to be a cyborg metaphor as an other in the technological age that makes us think about 'being able to be with one another,' and here we can confirm the SF sense of Yoon Yi-hyeong's novel.

Key words: Yoon Yi-hyeong, "Goodbye", "Suah", SF, cyborg metaphor, otherness, caring and responsibility, ethics of the other, ecofeminist narrative, loving eye, being able to be with one another

투 고 일 : 2023년 11월 14일 심 사 일 : 2023년 12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3년 12월 22일